

Theme Analysis

외인 추천 매수 종목

2008년 10월 17일

Analyst

이승준

02) 2009-7088

leesj@leading.co.kr

▶ 외인 장기투자자들은 저평가 중심의 주식위주로 매수세 확대

7월 이후 계속되는 급락장에서도 리자드에셋, 템플턴, 피델리티 등 외인 장기투자자들은 내수, 금융업종 등을 중심으로 CJ제일제당, 삼양제넥스, 메리츠화재, 빙그레 등 저평가 주식들에 대한 매수세 확대

- **리자드에셋(일명 장성하펀드)**: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운용하는 리자드에셋은 크라운제과 2.72%, 삼양제넥스 2.64%, 현대HS 1.89%, 대한제분 1.76% 추가취득하며 급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. 이밖에 에스에프에이, 대한화섬, 화성산업 등 기존 투자종목도 추가 매수

- **피델리티**: 한화그룹과의 제일화재 인수경쟁에서 실패한 뒤 메리츠화재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하여 8월 21일 공시 기준 9.28%의 지분을 보유. 그 외 옐로우칩 위주의 CJ제일제당 5.01%(7월), 아모레퍼시픽 5%(8월), 메가스터디, 인포피아, 플랜티넷을 보유

- **실체스터 인터내셔널**: 영국투자사인 실체스터 인터내셔널은 롯데제과 지분을 6.11%에서 7.14%로 확대하였다고 9월 공시

- **템플턴**: 9월 빙그레를 5%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. 이 외 미성포리테크와 네오팜의 지분을 추가 확대

- **모간스탠리**: 한진해운, 제일모직 매입을 공시

- **캐피탈그룹**: ST홀딩스를 5%이상 매입하였다고 공시우리이티아이: 노트북용 LED 매출 확대로 수익선 개선 기대

Compliance Note

- * 상기 게재된 테마 및 종목, 업종 등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매수 추천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 당사는 발간일 현재 상기 종목에 대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 지분 1%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당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